

광주시·정부·서울시·부산시 '미술축제 성공' 맞손

4개 기관 공동선언...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 등 홍보 통합입장권 30% 할인·연계 관광 개발·KTX상품 판매도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 등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부산시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문체부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체부·광주시·부산시·서울시 등 4개 기관은 다양한 미술행사를 유기적으로 잇고 통합 홍보해 전국을 다채로운 미술축제로 꾸며 관광객을 늘리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주요 미술행사 주관기관과 국내외 출·도착 거점기관인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공동선언문에서 ▲8-10월 미술행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미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기반 시설, 숙박, 투어 상품 등 관광 편의 지원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서울아트위크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종합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등 대표 미술축제와 키아프, 프리즈 등 대형 아트페어, 국공립 미술관 기획전시 등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 통합입장권 할인, '대한민국 미술축제' 관광코스 개발, 도보 미술여행 상품 판매, 럭셔리 관광 패키지 등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한 2만3천800원에 판매한다. 통합입장권을 소지하면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가 열리는 8월17일부터 12월1

일까지 주요 미술관 유료 전시 할인 또는 무료 입장 혜택을 받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여행객을 위한 광주비엔날레 등 입장권 연계 KTX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또 광주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종합 홍보한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옥외 전광판, 공항·역사 보유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미술축제를 알린다. 해외에도 재외 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주요 전문미술잡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올해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축제의 장이고, 축제는 사회통합의 장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미술을 매개로 어우러진다"며 "광주의 소중한 축적 자산인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서울, 부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시장에 쌀 거래가 적정 가격에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도내 RPC 재고 판매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2일 "2023년 RPC 벼 매입 자금 융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오는 6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2개월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전남도, 6월21일까지 집중 안전점검

노후·위험·생활밀착시설 등 각 762곳·1천688곳 대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6월21일까지 각각 762곳, 1천688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22일 고광안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 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자치구, 공사·공단 등의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과 교량 등 762곳으로 중앙부처 선정 기준과 시민 설문조사,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 점검하는 '주민신청제'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광주시는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하고 전문가의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해 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층건축물이나 급경사지, 맨홀 등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시설은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를 높일 방침이다.

안전관련 단체 회원이나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안전관찰단'을 가동, 병원·다중이용 시설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한다.

전남도는 건설현장, 노후 건축시설물, 도로시설물, 어린이 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1천688곳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집중 안전 점검 대상은 노후 시설물, 어린이 이용시설 등 사고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우선 선정했다.

토목·건축·전기·소방 등 18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담당 공무원, 도민,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산사태 취약지역,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인력 접근이 곤란한 시설물은 드론을 활용하고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집중 안전점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점검자가 현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점검 결과를 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정은 자율 안전 점검표를 제작·배부해 도민이 직접 점검에 참여토록 유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점검이 일상화되도록 안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사용 금지·철거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 쓸 기술일 예정이다. /김재정·박선경기자

도, RPC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 8월까지 연장 건의

6월 상환 위해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쌀값 하락 부추겨

전남도는 22일 "2023년 RPC 벼 매입 자금 융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오는 6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2개월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난 2월 정부의 공격개발 원조 식량원조 추가 매입에도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부 RPC에서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금 확

보를 위해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에 배정된 벼 매입자금은 6천945억원(정부 1천719억원·농협중앙회 5천226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오는 6월까지 10개월이다.

전남에는 농협RPC 21개소와 민간RPC 9개소가 있으며 3월 말 기준 전년 대비 53.6% 많은 30만3천1의 쌀 재고 물량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 기간 연

장이 필요하다.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부터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달 초 기준 수확기보다 13.5% 하락해 1921천704원(80kg)에 거래되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 시장에 쌀 거래가 적정 가격에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도내 RPC 재고 판매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남 레이저산업 클러스터 비전 제시

도, 국가 핵심거점 산업 생태계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

전남도는 22일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국내외 레이저 산업 분

석을 바탕으로 국내 레이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 핵심 사업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최초 레이저산업 클러스

터 중심으로 에너지 신기술, 우주 및 국가 안보 대응, 레이저 부품·장비 시험인증, 기업 지원 등 관련 시설을 구축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국가사업과 레이저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초강력 레이저 국가계획 반영 등 각종 첨단 연구 기반시설 구축 노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양시원기자

www.kdn.com

에너지로 사람을 밝힙니다

배려가 에너지가 될 순 없을까? 나눔이 에너지가 될 순 없을까?
이 생각이 사회를 향한 한전KDN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밝히는 에너지ICT기술,
한전KDN이 시작합니다**

요양원 헬스케어 밴드 서비스

중소기업 무료 보안컨설팅

KDN 디지털 IT용 지원

지역 커뮤니티 육성 로보틱스교실

스마트 홈 운영